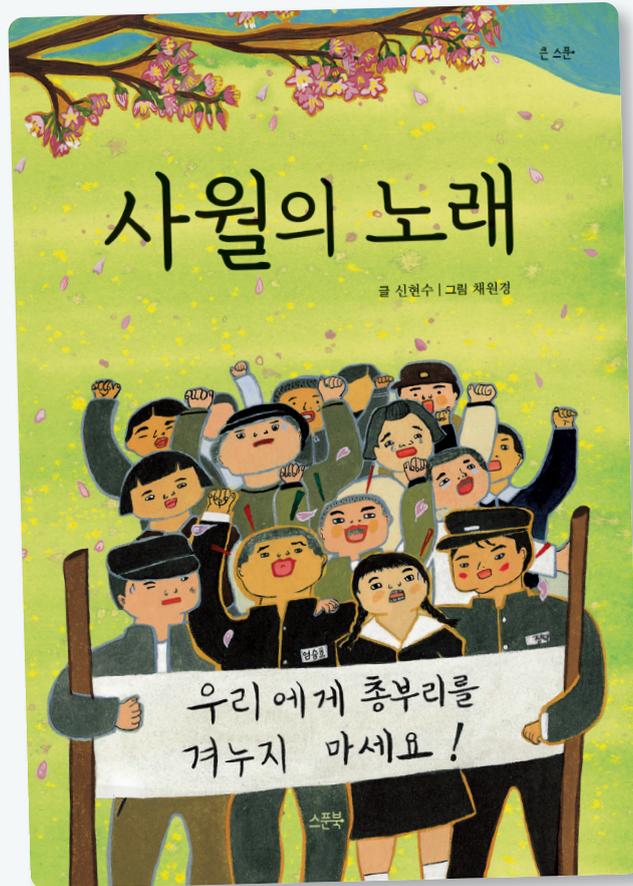


초등 5학년
독후활동지 (학생용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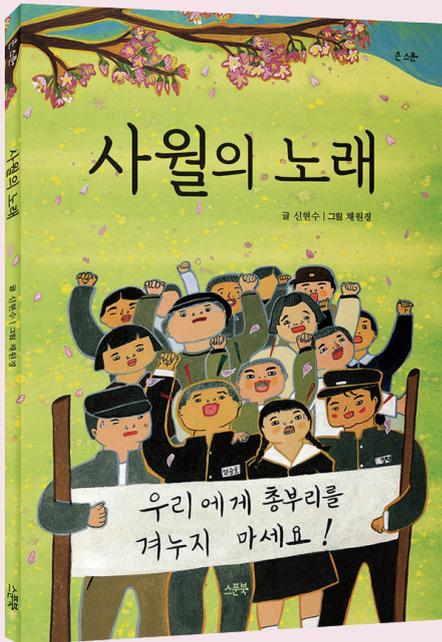
책을 읽고 생각을 넓혀요



사월의 노래

글 신현수 | 그림 채원경

스폰북



사월의 노래

- 글: 신현수
- 출판사: 스펀북
- 분량: 120쪽
- 교과 연계: 국어 5-1 가 4. 작품에 대한 생각
국어 5-2 가 1. 문학이 주는 감동
- 그림: 채원경
- 정가: 11,000원
- 대상: 초등 고학년

책 소개

1960년 4월, 우리나라 현대사 줄기에 커다란 꽃봉오리 하나가 올라왔어요. 바로 4·19 혁명이예요. 4·19 혁명은 우리나라에 민주주의가 싹을 틔우고 꽃피우는 데 엄청난 역할을 한 사건이었어요. 그 역사적인 현장에는 어린이들도 있었어요. ‘부모 형제들에게 총부리를 겨누지 마라!’라고 쓰인 현수막을 들고 목소리를 냈지요. 운동장에서 해맑게 뛰어놀아야 할 어린이들이 도대체 무엇 때문에 그 위험하고 무서운 시위 현장으로 뛰쳐나오게 됐을까요?

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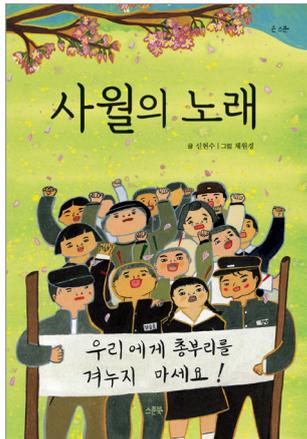
독서 전

국어 교과_독서 단원 연계

책 미리 보기: 표지

- 책의 앞뒤 표지의 제목, 글귀, 그림을 살펴봅시다.

1 《사월의 노래》의 앞표지와 제목을 보고 드는 생각과 느낌을 써 보세요.



사월의 노래

번호	앞표지와 제목을 보면서 드는 생각
1	
2	
3	



독서 전

• (2~3) 《사월의 노래》의 뒤표지에 쓰인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세요.

오빠 언니들은
책가방을 안고서
왜 총에 맞았나요

나는 알아요. 우리는 알아요
엄마 아빠 아무 말 안 해도
오빠와 언니들이 왜 피를 흘렸는지를

1960년 한 신문에 실린 4·19 혁명에 대한
수송국민학교 4학년 강명희 어린이의 시 중 일부

2 명희가 4·19 혁명에서 본 건 무엇일까요?

.....
.....
.....
.....

3 윗글의 내용을 바탕으로, 어떤 일이 있었을지 예상해 보세요.

.....
.....
.....
.....



독서 중

•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세요.

[53-54쪽] “내가 심부름을 시키든 말든 뭐 상관이나? 기욱이가 네 동생이라도 되냐?”
 승호는 지지 않고 대들었다.
 “몰라서 묻냐? 네 멋대로 애들을 부려 먹잖아.”
 “내가 뭘!”
 “만날 곳은일은 애들 다 시키고, 청소 시간에는 감독만 하고. 이젠 네 공책까지 갖다 달래?
 그게 ()이야?”
 승호가 소리치자 도환이가 멈칫했다.
 “뭘? ()?”
 “그래, 네가 우리 반 ()이 되겠다고 했잖아. 까먹었냐?”
 “내가? 그런 말 한 적 없는데?”
 도환이가 눈도 깜짝 않고 대꾸하자 아이들이 속닥거렸다.
 “급장 완전 오리발이네. () 된다고 한 적이 없단다.”
 “미치겠다. 우리가 다 들었는데. 사실은 ()이 아니라 왕이지 왕.”
 “그냥 왕이면 괜찮게? 왕 중에서도 독재자 왕이라니까.”
 “급장 되면 원기소랑 극장표도 준다더니 그것도 안 줬어. 거짓말쟁이.”
 “그래도 어떡하냐. 급장 눈 밖에 나면 없는 일까지 만들어 선생님한테 일러바치는데. 변소
 청소도 시키고.”

1 위에 빈 칸에 공통적으로 들어갈 말은 무엇일까요?

- ① 왕
- ② 엄마
- ③ 머슴
- ④ 선생님

2 반 아이들은 도환이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나요?



독서 중

국어 교과_독서 단원 연계

인상 깊은 내용을 생각하며 책 읽기

• 《사월의 노래》의 일부입니다. 여러분이라면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했을지 써 보세요.

[104-105쪽] 오늘은 바로 그날이었다. 6학년들이 덕수궁 앞에 모여 데모를 하기로 한 날. 정택이와 명혜는 벌써 골목길 끝 공터에 나와 있었다. 며칠 전 6학년들이 데모를 한다는 소식을 승호가 전했을 때도 누가 먼저랄 것 없이 데모하러 가겠다고 방방 뒀던 둘이었다.

“일찍 왔네? 어른들한테는 얘기 안 했지?”

승호가 문자 정택이가 고개를 끄덕였다.

“당연하지. 말해 봤자 못 나가게 할 게 뻔한데 뭘.”

명혜도 모처럼 해맑게 웃었다.

“나도 그냥 조금 놀다 온다고 했어. 6학년들 데모 나가는 거 소문 퍼졌던데 우리 엄마는 모르는 것 같아.”

“모르시는 게 낫지. 아주머니가 아시면 앞장선다고 하실걸.”

“맞아. 그래서 나도 말할까 말까 망설였어. 근데 쏘 떨린다, 승호 오빠.”

“명혜야, 그럼 가지 말까? 무서우면 안 가도 돼.”

승호가 걱정하자 명혜는 필쩍 뛰었다.

“내가 안 가면 누가 가! 우리 오빠 일인데……. 혹시 오빠가 겁나는 거 아냐?”

때는 가슴이 벅차올라 당장 같이 하겠다고 했지만, 집에 가서 생각하니 슬그머니 겁이 났다. 그런데 차츰 시간이 지나니 마음속에서 겁이 걷히고, 조그만 믿음이 싹트는 것이었다. 6학년 형들한테 들은 그 말이 머릿속에 떠오르면서.

‘이럴 때 우리가 나서면 절대로 경찰이 총 못 쏠 거래. 우리는 명규 동무잖아.’

정말 그럴 것 같았다. 억울하게 죽은 동무를 위해 나서는 아이들을 향해 경찰이 설마 총을 쏘까.

나라면,



독서 후

• 다음은 《사월의 노래》의 주요 장면입니다. 그림을 보고,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써 보세요.

그림	장면 설명하기



독서 후

• 다음은 《사월의 노래》의 주요 장면입니다. 그림을 보고,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써 보세요.

그림



장면 설명하기





독서 후

• 민주주의를 위해 싸우다 희생된 언니, 오빠, 친구들에게 편지를 써 보세요.

_____에게,



독서 후

• 《사월의 노래》 내용을 떠올리며 아래 질문에 답하세요.



1 사람들은 왜 데모를 했나요?

2 경찰이 되고 싶던 명규는 어떻게 되었나요?

3 아이들이 행진하면서 부른 노래는 무엇인가요?



독서 후

• 다음 힌트를 참고하여 《사월의 노래》에 나오는 낱말이 무엇인지 맞춰 보세요.

<p>ㅂ ㅋ ㅎ ㄷ</p>	<p>ㄱ ㅊ ㅂ ㅅ ㄱ</p>	<p>ㅇ ㄱ ㅅ</p>
<p>얼굴빛이 술기운을 띠거나 혈기가 좋아 불그레하다. (22쪽)</p>	<p>김치를 담아 먹는, 주발보다 작은 모양의 그릇 (22쪽)</p>	<p>1960~70년대에 어린이들이 먹던 비타민 영양제 (31쪽)</p>
<p>ㅇ ㅅ ㅎ ㄷ</p>	<p>ㅎ ㅇ</p>	<p>ㄱ ㅇ ㄹ</p>
<p>일본어 '앗싸리'에서 온 사투리로 깨끗하다, 딱 부러지고 화끈하다는 뜻이다. (51쪽)</p>	<p>특별한 일이 있을 때에 임시로 발행하는 신문이나 잡지를 말한다. (58쪽)</p>	<p>군사적 필요나 사회의 안녕과 질서 유지를 위하여 일정한 지역의 행정권과 사법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군이 맡아 다스리는 일(86쪽)</p>
<p>ㅇ ㅇ ㅊ</p>	<p>ㅎ ㅇ</p>	<p>ㅇ ㅅ ㅎ ㄷ</p>
<p>총을 앞으로 세워 들고 차렷 자세를 취하는 동작 (106쪽)</p>	<p>시골로 내려간다는 뜻으로, 관직이나 정계에서 물러남을 이르는 말 (112쪽)</p>	<p>여럿 중에서 어떤 대상을 첫자리 또는 대표로 삼다. (113쪽)</p>